



5. 다음은 갑국의 문화 변동 사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은 최근 외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통의상 대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통 장인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디자인 공모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 A. “외래문화는 선진적이며 세련되었기에, 우리의 전통문화도 그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 B. “외국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C. “우리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외래문화는 우리 정체성을 해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 D. “서구 문화는 너무 영향력이 커서 결국 우리의 문화가 그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 ① A와 D는 모두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다.
- ② 갑국의 문화 변동은 문화 병존에 해당한다.
- ③ B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④ C의 관점은 국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⑤ 갑국의 사례는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이 동시에 일어난 문화 접변 사례로 볼 수 있다.

6. 다음은 갑국의 특정 문화가 변화해 온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 갑국에서 특정 음악 장르는 기성세대와 권위적 질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파격적인 패션, 행동양식을 수반하며 청년 세대 일부에게 확산되었다. 당시 주류 언론은 이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퇴폐적 흐름’으로 간주했고,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이 문화를 따르는 학생들을 제재하거나 규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장르는 점차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고, 일부 가수들은 국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문화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이 장르의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와 연결되며, 정부의 문화 정책 지원 대상이 되었다.

- ① 등장 초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②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반에 공유되며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지위를 회복했다.
- ③ 오늘날 주류문화의 일부로 흡수되며 제도적 보호를 받는 위치에 놓였다.
- ④ 변화 과정을 문화의 변동성과 권력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처음부터 일정 계층에게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7. 갑의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두 문화권의 언어를 모두 익히며 자라왔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그는 학급 회장을 맡아 교내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 내 봉사 동아리의 운영도 책임지고 있다. 최근 갑은,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야 하는 상황과 학교 프로젝트 발표 준비 일정이 겹치면서, 각 지위에서 기대되는 요구 사이의 조율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그는 장래에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방과 후엔 관련 독서 모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① 갑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지위는 그가 속한 법적·제도적 지위로서 귀속지위에 해당한다.
- ② 갑이 맡은 ‘학급 회장’과 ‘봉사 동아리 운영자’는 모두 성취지위로 분류된다.
- ③ 갑이 겪고 있는 갈등은 하나의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 ④ 갑이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배경은 그가 가진 귀속지위 형성에 영향을 준다.
- ⑤ 갑이 참여 중인 독서 모임은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으로, 성취지위에 포함될 수 있다.

8. 다음 자료는 A~D 네 가지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이론, 차별 교제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임.) [3점]

- A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일부 개인이 사회의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 B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했는가보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일탈의 지속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C는 일탈은 사회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
- D는 급격한 사회 변화나 전통적 규범의 붕괴로 인해 규범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보기>

- ㄱ. A는 C와 달리, 일탈의 발생 원인을 사회화 과정보다는 구조적 긴장에서 찾는다.
- ㄴ. B는 D보다 사회 전체의 규범 약화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자아를 수용하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
- ㄷ. C는 B와 달리,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 변화보다 상호작용적 관계망 자체에 둔다.
- ㄹ. D는 A보다 제도적 수단의 정당성보다 규범의 무력화 자체를 더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9. 다음은 갑국의 빈곤 관련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국의 사회연구원은 최근 ‘빈곤의 양상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최저 생존선 이하의 생활을 지속하는 가구는 줄었지만,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받는 계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통신, 주거 등 필수 영역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생존은 가능하지만, 같은 세대 내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 때문에 삶의 질에서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다.

- ① 보고서에 언급된 ‘필수 생활비 부담 증가’는 문화적 상대성보다 생물학적 기준에 기반한 빈곤 개념과 관련된다.
- ② 갑국에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가 늘었다는 점은 상대적 빈곤의 확산을 의미한다.
- ③ 갑국에서 최저 생존선 이하의 가구가 줄었다는 점은 절대적 빈곤의 감소를 시사한다.
- ④ 청년층의 ‘소외감’은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것이다.
- ⑤ 갑국의 빈곤 양상은 과거보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0. 다음은 갑국의 계층 구조와 세대 간 이동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중층·하층으로 구분되며, 한 개인은 한 계층에만 속함.) [3점]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통계 (단위: %)

부모 세대 계층	자녀 세대 상층	자녀 세대 중층	자녀 세대 하층
상층	62	33	5
중층	18	63	19
하층	4	27	69

※ 갑국은 전체 인구가 고르게 상·중·하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계층 이동은 세대 간 이동을 의미한다.  
 ※ ‘잔존률’이란, 부모 세대와 동일한 계층에 머무른 자녀 세대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①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하층 잔존률은, 상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층 잔존률보다 높다.
- ② 중층에서 출발한 세대는 상층·하층으로의 수직 이동보다 계층 내 재생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상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비율보다 작다.
- ④ 자녀 세대에서 중층에 속한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상층 부모를 둔 사람이다.
- ⑤ 갑국은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나, 계층 간 폐쇄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다음은 두 문화 집단의 시간 인식과 과거 사건의 기억 방식에 관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문화인류학자 N은 두 문화 집단을 관찰하였다.

- X문화 집단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 연대나 날짜로 기억하지 않고, 특정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관습과 연결해 사건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기억하였다.  
예) “큰 홍수가 난 해 이후 몇 해 뒤쯤,” “장례식 축제가 있었던 시기 무렵”
- Y문화 집단은 문서와 달력을 활용하여 사건의 연대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세대 간 교육을 통해 연대별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N은 “두 집단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연결하려는 문화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보기>**

- ㄱ. X문화 집단은 비물질문화의 일부로 시간 인식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ㄴ. Y문화 집단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식화·제도화된 방식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지닌다.
- ㄷ. 두 문화 집단 모두 과거와 현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며, 시간의 비연속성을 강조한다.
- ㄹ. X문화 집단의 시간 인식은 문화의 총체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 C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혼합적 특성이 있는 조직 형태 중 하나임.) [3점]

- 조직 A는 절차에 따라 상급자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뤄진다.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 문서와 직무 규정에 기반하며,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정해진 지침을 우선시한다.
- 조직 B는 비교적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 구성원 간 자발적인 협력이 강조된다. 개인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중시되며, 다양한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 조직 C는 일정 수준의 위계와 절차를 유지하되, 비정기적인 구성원 회의나 협의체를 통해 의사소통을 보완하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는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조직 B는 (비교 기준 1)에서 조직 A보다 ‘약함’에 해당하며, (비교 기준 2)에서는 조직 C보다 ‘강함’에 해당한다.
- 조직 C는 (비교 기준 1)에서는 B보다 ‘강함’이고, (비교 기준 2)에서는 A보다 ‘강함’이다.



비교 기준	의미
비교 기준 1	공식성, 규범화 정도
비교 기준 2	구성원 참여 및 유연한 의사 결정 구조

**<보기>**

- ㄱ. 조직 A는 B보다 공식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ㄴ. 조직 C는 A와 B의 조직 형태적 장점을 절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ㄷ. 비교 기준 2에서의 ‘강함’은 자율성보다 절차적 통제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 ㄹ. 조직 B는 A보다 구성원의 창의성과 융통성 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더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은 문화 변동에 대한 두 인물의 발언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단, 복순과 춘식은 각각 진화론적 관점, 순환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p><b>복순:</b>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 문화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생존 수단 위주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과 예술, 도덕과 기술이 발전해 왔죠. 앞으로도 문명은 진보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 봅니다."</p>	 <p><b>춘식:</b> "물론 문화가 변하긴 하지만, 꼭 발전한다거나 진보한다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한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오고,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순간도 많잖아요. 권위주의가 사라진 듯해도 또 다시 등장하고, 폐쇄적 문화가 되살아나기도 하죠. 문명은 늘 돌고도는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p>
--	--

- ① 두 사람 모두 문화 변동의 방향성이 일정하다고 본다.
- ② 복순은 모든 사회의 문화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고등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본다.
- ③ 춘식은 문화 발전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주기적인 변동을 겪는다고 본다.
- ④ 두 사람의 관점 모두 문화의 우열을 비교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 ⑤ 복순의 관점은 역사와 문화를 반복적 주기로만 설명하여 새로운 창조·축적의 의미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가) 제도는 사후 처방적 성격의 현금 급여 중심 제도로,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

• (나) 제도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사회 서비스 중심 제도로, 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계층이 겪을 수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미리 완화하고자 요양·돌봄·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 B 지역의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남성	A 여성	A 전체	B 남성	B 여성	B 전체
(가)제도	12	18	15	8	12	10
(나)제도	7	5	6	12	10	11

※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1.5배이다.  
 ※ 두 제도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수급자는 중복되지 않는다.

**<보기>**

ㄱ. (가) 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더 높다.

ㄴ. (나) 제도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므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ㄷ. (가) 제도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되므로, 사회적 낙인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ㄹ. (나) 제도 수급률은 B 지역 전체 수급자 수 기준으로 보면 A 지역보다 2배 이상이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빠른 정답

③	④	②	④	④
②	③	⑤	①	④
⑤	③	②	④	

**예상 등급컷 (총점 35점 만점)**

**1등급: 32점**

**2등급: 29점**

**3등급: 24점**

(목표 소요 시간: 20분)

### Turbine 사회문화 모의고사 1회 총평

이번 세트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출 및 수능특강과 수능원정에 제시된 문항 유형을 토대로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평가원 출제 경향에 맞추어 기본 개념 확인, 사례 적용, 자료 제시문 해석, 문화 변동 관련 관점 비교, 집단과 조직의 구분, 연구 방법론 영역을 포함했다.

문항 구성은 단순 개념 확인형부터 연구 방법론, 통계 자료 제시형, 문화 변동 관점 비교형까지 범위를 넓게 배치하였다.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능원정의 문항 스타일을 참조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수준과 유사하게 설정되었다. 문항 풀이 과정에서 과도한 계산이나 비현실적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교과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 가능한 수준을 유지했다.